

●[윤리와 사상]

1. 인간의 특성 (2점) [정답] ④

제시문에는 A가 자신의 삶을 성찰하며 자신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자유인의 삶을 추구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① 유희적 존재, ② 정치적 존재, ③ 예술적 존재, ⑤ 도구적 존재로서의 인간과 관련 있다.

2. 노자의 사상 (2점) [정답] ①

제시문에 담겨 있는 사상은 노자의 도가 사상이다. 노자는 허정(虛靜) 공부를 통해 인간이 진정한 삶의 길, 즉 도를 체득할 수 있다고 보았고, 다투지 않으며, 낮은 곳에 머무르는 수양 태도를 제시했다.

ㄷ. 도가는 인간이 타고난 자연스러운 본성을 충분히 자유롭게 발휘했을 때 행복해질 수 있다고 본다. ㄹ. 유가의 입장이다.

3. 정약용의 사상 (3점) [정답] ②

제시문은 정약용의 주장이다. 정약용은 인간의 마음에는 선이나 악을 행하고자 하면 선택하여 실천할 수 있는 자유 의지[自主之權]가 있다고 여겼다.

① 정약용은 인간의 성(性)에는 영지의 기호와 형구의 기호가 있고, 동물의 성(性)에는 형구의 기호만 있다고 보았다. ③ 정약용은 덕이 인간의 본성에 내재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행위 속에서 실천하면서 형성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④ 정약용은 ‘성은 곧 마음에 있는 천리[性卽理]’라는 성리학의 기본 전제를 거부하였다. ⑤ 정약용은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

4. 플라톤의 정의 (3점) [정답] ④

(가)를 주장한 서양 사상가는 플라톤이다. 그는 각 계층의 사람들이 나름의 역할과 질서에 따라 자신의 일에만 전념할 때 나라에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즉 각 계층의 사람들이 각자의 일에 머물고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할 때 국가의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① 플라톤은 생산 계층의 사유 재산을 인정하였다. ② 공리주의자가 주장하는 것이다. ③ 롤스가 정의의 원칙에서 주장한 차등의 원칙이다. ⑤ 플라톤은 전사(戰士, 보조자) 계층과 생산 계층은 통치에 참여하지 않아야 정의로운 국가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5. 지눌의 사상 (2점) [정답] ⑤

(가)를 주장한 사상가는 지눌이다. 지눌은 교학을 깨달음에 이르는 선 수행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선종과 교종의 공존을 꾀하였다.

ㄱ. 지눌은 교학은 단지 이론적인 수준이고 객관적 지식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를 넘어서려면 직접적인 체험인 선 수행을 통해 진리를 자기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6. 매킨타이어의 입장 (2점) [정답] ②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는 매킨타이어이다. ㄱ. 매킨타이어와 같은 현대 덕 윤리학자들은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중시하기보다는 공동체를 중시한다. ㄷ. 매킨타이어는 덕 교육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개인의 선이 그가 속한 공동체의 다른 모든 사람의 선과 동일하다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ㄴ. 매킨타이어는 덕의 상실을 비판하며 덕스러운 삶을 추구해야 한다고 보았다. ㄹ. 매킨타이어는 인간은 누구나 특정한 사회적 정체성을 지닌 사람으로서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이해한다고 주장하였다.

7. 스토아학파의 사상 (3점) [정답] ⑤

제시문은 스토아학파의 입장이다. 스토아학파가 주장하는 윤리적 삶이란, 신이 정한 우주와 세계의 질서에 순응하고 복종하는 것을 의미한다.

①, ④ 스토아학파가 제시한 바람직한 삶으로서 ‘자연에 따르는 삶’이란 이성에 따르는 삶인 동시에 자연의 법칙, 즉 자연법에 따르는 삶을 의미한다. ② 스토아학파는 자연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인과 법칙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③ 스토아학파는 자연이 이성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고 본다.

8. 공자의 사상 (2점) [정답] ①

제시문은 공자의 글이다. 공자는 이상적인 정치가 지도자의 덕성과 예로 교화하는 데 있다고 보아 덕치와 예치를 주장하였다.

ㄴ. 공자는 사람의 본성이 악하다고 보지 않았다. 그는 인(仁)을 본래 타고난 도덕성으로 보았다. ㄹ. 공자는 경제적인 분배의 형평성을 강조하였다.

9. 벤담과 칸트의 사상 (2점) [정답] ③

갑은 벤담, 을은 칸트이다. 벤담은 사회가 개인의 집합체이므로 개개인의 행복은 사회 전체의 행복과 연결되며, 더 많은 사람이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은 그만큼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① 칸트, ② 벤담의 입장이다. ④ 칸트가 생각한 도덕 법칙은 그 자체가 목적인 무조건적 명령으로, 행복조차 결코 도덕에 우선하는 목적이 될 수 없다. ⑤ 칸트는 모든 도덕 문제의 핵심이 인간의 자기중심적 태도의 극복에 있다고 보았다.

10. 위정척사와 동도 서기론 (2점) [정답] ④

갑은 위정척사를 주장하는 이항로, 을은 동도 서기론적 개화사상을 제시하는 신기선이다. 이항로와 기정진을 비롯한 위정척사 사상가들은 서양의 종교와 문물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척양과 척왜의 강력한 의리론을 주장하였다. 위정척사와 동도 서기론적 개화사상은 모두 유교적 인륜 도덕을 중시하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11. 홉스와 로크의 비교 (3점) [정답] ③

갑은 홉스, 을은 로크이다. ㄷ. 홉스는 자연의 상태에서 사람들이 저마다 자신의 생존과 이익만을 추구한 불가피한 결과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고 보았다. 로크는 홉스와 달리 자연 상태란 자연법이 지배하는 평화로운 상태라고 보았다. ㄹ. 홉스는 투쟁 상황을 극복하려고 사람들이 사회 계약을 맺어 국가를 수립하고 통치자에게 절대권을 부여한다고 보았다. 로크 역시 사회 계약을 주장하였다.

ㄱ. 홉스는 각자가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도덕적으로 행동한다고 보는 윤리적 이기주의의 태도를 취한다. ㄴ. 로크는 사회적 본성을 인정함으로써 근대 시민 윤리의 초석을 마련하였다. 홉스의 이기주의적인 인간관은 인간의 사회적 본성을 경시함으로써 도덕의 근거를 위협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12.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 (2점) [정답] ⑤

인간의 행복을 위해 지성적 덕과 품성적 덕이 필요하다고 본 서양 사상가는 아리스토텔레스이다. 가로 열쇠 (A)는 중도, (B)는 정약용이다. 세로 열쇠 (A)는 중용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을 지나침과 모자람의 중간 상태로 이해하였다.

①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을 현실 세계에서 실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② 아리스토텔레스는 욕구의 제거를 강조하지 않았다. 대신 욕구와 욕구 충족의 방식과 목적이 올바른 것이 될 것을 강조하였다. ④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어떤 상태가 중용인지는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13. 맹자와 순자의 공통 입장 (3점) [정답] ④

갑은 성악설을 주장한 순자, 을은 성선설을 주장한 맹자이다. 순자는 예(禮)가 후천적으로 성인의 작위에 의해 생겨나는 것이지 본디 사람의 본성에서 생겨

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① 맹자와 순자는 본성을 하늘로부터 타고난 것으로 이해하였다. 다만, 맹자는 선한 본성을 하늘로부터 타고났고, 순자는 악한 본성을 타고났다고 주장하였다. 순자는 본성이란 하늘로부터 타고난 것이어서 배워서 행하게 될 수 없는 것이며,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고 하였다.

14. 라이프니츠의 사상 (3점) [정답] ①

제시문은 라이프니츠의 입장이다. 그는 단자가 물질이 아니라 정신이라고 주장한다.

② 각각의 단자에는 각자의 목적이 부여되어 있다. ③ 라이프니츠에 의하면 단자는 서로 분리되어 상호 작용하지 않고 스스로 행동한다. ④ 단자들은 질서 정연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⑤ 단자는 정신이기에도 더 작은 조각으로 쪼개어질 수 없다. 더 작은 조각으로 계속 쪼개질 수 있는 것은 물질이다.

15. 원불교와 증산교 (3점) [정답] ②

(가)는 원불교, (나)는 증산교이다. ② 원불교는 기존의 종교나 사상과는 달리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라고 선포하며, 영육쌍전(靈肉雙全)·이사병행(理事並行) 등을 내세워 정신과 물질의 균형을 강조하였다.

16. 에피쿠로스학파의 입장 (3점) [정답] ②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는 에피쿠로스이다. 그는 비자연적이고 필수적이지 않은 욕구를 추구하는 것은 고통의 원인이 된다고 보았다.

ㄴ. 에피쿠로스는 쾌락을 추구하였다. ㄹ. 에피쿠로스는 사치를 멀리하고 검소한 식사를 하면서 건강을 유지하는 삶을 지향하였다.

17. 고타마 싯다르타의 사상 (2점) [정답] ③

제시문은 고타마 싯다르타, 즉 석가모니의 주장이다. 그는 현실적으로 인간의 자유를 박탈하고 끝없이 고통스럽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깊이 성찰하였는데, 그것은 곧 인간의 마음 깊이 갇혀 있는 진리에 대한 무지, 곧 무명(無明)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18. 데카르트, 스피노자, 헤겔의 사상 (2점) [정답] ②

갑은 스피노자, 을은 헤겔, 병은 데카르트이다. 세 사상가는 모두 인간의 본성을 이성으로 본다.

① 헤겔, ③ 데카르트, ④, ⑤ 스피노자가 긍정할 질문이다.

19. 왕수인과 이황, 이이 (3점) [정답] ⑤

갑은 양명학의 왕수인, 을은 이황, 병은 이이이다. ㄱ. 사덕을 실천하여 앎과 행동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것은 왕수인과 이황, 이이의 공통점이다. ㄴ. 이황은 사단의 연원을 이(理), 칠정의 연원을 기(氣)로 보았고, 이이는 사단과 칠정의 연원을 모두 기로 보았다. ㄷ. 이황은 선한 본성을 실현하는 태도로서 경(敬)을 강조하였고, 이이 역시 사욕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경의 실천을 제시하였다. ㄹ. 왕수인에 의하면, 사람은 누구나 본래부터 양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론적인 학습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인간의 도덕성을 구현할 수 있다.

20. 왕수인과 이황, 이이 사상 (3점) [정답] ③

이이는 현실 세계에서 변화할 수 있는 기질(氣質)을 바로잡음으로써 ‘이(理)’의 본연, 즉 선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기질을 바로잡는다는 수양론을 통해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기질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강조하였다.

① 왕수인은 양지를 타고난다고 보았다. ②, ⑤ 이황, 이이 등의 성리학자는 인, 의와 같은 덕을 선천적인 것으로 보았다. ④ 양명학자와 성리학자는 모두 인간의 본성을 선하게 보았다.